화제의저자

동양사상의 현대적 의미 풀어낸 '암호 해독사'

《왜 동양철학인가》 펴낸 한형조 교수

한형조 교수가 펴낸 《왜 동양철학인가》는 난해한 동양철학의 각질을 깨고 이를 현실과 소통시키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그는 동양철학이 우리가 어떻게 물음을 건네느냐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텍스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과 텍스트에 물음을 던지는 법을 병행할 때, 동양적 사유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팔림세스트'(palimpsest). 이미 씌어 있던 문자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쓴 양피지를 뜻하는 말이다. 무릇 경전은 팔림세스트의 운명을 타고나는지도 모른다. 경전의 주석과 각주가 한우충동에 이르지만 경전의 정신은 덧칠된 문자처럼 오리무중에 빠지기 십상이다. 동양철학도 마찬가지다. 암호문자화한 동양철학은 스스로 빗장을 지르고 자신을 유배시켜왔다.

동양철학의 대문에 걸린 빗장을 벗겨 일상과 소통시키는 일. 한형조 교수(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왜 동양철학인가》(문학동네)가 수행한 작업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동양철학을 구출해 대중의 몫으로 넘겨준다. 유학·불교·노장·법가·주자학이 '변방의 쇳소리'가 아니라 동시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살가운 속삭임'임을 깨우쳐준다.

한형조 교수(문학동네 사진제공)

문학동네/A5신/270면/8000원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대화

이 책을 관류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인 대화다. 전통이 과거인의 사유에서 박제된 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연원과 맥락을 독해함으로 텍스트와 당대 현실의 긴장에서 나오는 울림에 귀를 열어두는 일이다. 한교수가 이 책에서 '해석학적 모험'을 감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과거의 사상은 우리가 물음을 건네는 한에서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상은 영원히 현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텍스트는 주관의 관심과 수준의 개성에 따라 무한히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해석과 이해의 관건은 텍스트를 향해 물음을 던지는 법과 텍스트가 전해주는 목소리를 읽는 법입니다."

그동안 동양철학은 텍스트 해석에만 치중했을 뿐, 텍스트에 물음을 던지는 일에 깊이 유의하지 못했다고 한교수는 비판한다. 텍스트를 일방적 교화의 '성전'(聖典)으로 우상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물음을 던지는 데는 과감하나 대답을 들으려는 자세나 훈련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전한 동양철학은 이 두 함정을 피해가면서 형성될 것입니다. 동양적 사유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삶의 양태에 대한 근원적 반성과 손잡을 때 그 실질적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한교수는 불교와 노장, 유학과 법가 가운데 어느 한 사상을 우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집해 교조화할 경우, 개인의 심신의 건강과 사회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 경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시대는 노장의 개인주의와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무시했고, 법가의 조언에 귀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통합의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동양철학의 연합과 공조 강조해

이 책에는 한교수의 독특한 관점이나 해석이 담겨 있다. 유학은 '자기를 위한 학문'의 정신으로 회복해야 희망이 있다는 주장이나,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점수(漸修)의 지평에서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제언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생적인 근대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갔던 사상가로 혜강 최한기를 높이 평가한다.

"혜강의 기학(氣學)은 경험적 사실만으로, 그러면서도 타자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 기획은 자연과 인간, 정신과 신체, 자아와 타자를 분열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는 지평 위에 서 있습니다."

혜강의 기학에서 미래 인문학을 위해 열려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한교수는 나아가 동양사상에서 서구 근대사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낸다. 욕망의 무한충족 위에 구축된 서구의 근대는 타인의 소외와 자연의 착취를 결과했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은 생태학적 관심으로 노장을 읽고 자아와 대면하기 위해 불교의 수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의 전통도 여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유학은 일상과 사회관계를 떠나지 않고 내면적 의미를 구현하는 법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동양철학은 근대의 도전 앞에서 연합하고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 박천홍 기자